

첫 우승의 추억 감격 다시 한번

방신실 KLPGA E1 채리티오픈 첫 타이틀 방어 24일 페럼GC 개막... 박현경·이예원·박지영 불참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2년 차 방신실이 생애 첫 타이틀 방어에 도전한다. 장타자인 방신실은 24일부터 사흘간 경기도 여주시 페럼클럽(파72)에서 열리는 KLPGA 투어 E1 채리티오픈(총상금 9억 원)에 출전한다.

제12회 E1 채리티 오픈은 2013년 당시 KLPGA 회장이던 구자용 회장(E1 회장)이 재임 시절 국내 여자골프 발전을 위해 단계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2013년 첫해부터 2022년까지는 사우스 스프링스GC(경기도 이천시)에서 진행됐고, 지난해 처음 성문안CC(강원도 원주)로 바뀌었다가 올해 다시 페럼클럽(파72)으로 변경됐다.

E1채리티 오픈에서 11번의 우승컵 주인공이 가려졌지만 한 명의 다승자도 허락하지 않을 만큼 매년 치열한 샷 경쟁이 펼쳐졌다. 방신실의 타이틀 방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2004년생인 방신실은 지난해 이 대회에서 1라운드부터 마지막까지 선두를 놓치지 않는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으로 투어 첫 승을 장식했다. 아마추어 강자로 군림하다 프로에서 첫 우승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게 된 계기가 됐다.

방신실은 2023시즌 우승 2차례를 포함해 톱10에 9차례 진입했고 신인상 포인트 3위, 대상 포인트 8위, 상금 9위에 올랐다. 올 시즌에는 아직 우승은 없지만 앞선 7개 대회에서 준우승, 3위, 4위를 한 번씩 했을 정도로 흐름이 좋다.

드라이브 비거리 4위(255.94야드)에 오를 정도로 장타력을 뽐내면서도 정교함을 유지해 그린 적중률 2위(80.83%)를 달리고 있다. 평균 타수는 3위(69.7

타)다. 이달 10일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 1라운드에서 5오버파 끝에 컨디션 난조로 기권했고, 지난주 두산 매치플레이어에선 16강에 오르지 못했다.

방신실은 KLPGA를 통해 "시즌 초반 페이스가 좋았는데 구질을 바꿔보려고 시도했다가 샷감이 잠깐 흔들려서 원래의 구질로 플레이하며 감각을 되찾고 있다"면서 "우승을 노리기보다는 부담감을 내려놓고 과정에 집중한다면 좋은 결과가 따라올 것"이라고 말했다.

상금·대상포인트 1위 박현경을 비롯해 2위 이예원, 3위 박지영은 다음주 열리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최고의 메이저 대회인 US여자오픈(총상금 1200만 달러·약 165억6000만 원)에 출전하느라 불참한다.

방신실과 절친인 프로 2년 차인 황유민, 최은우 등이 시즌 2승 사냥에 나선다. 과거 챔피언 이정민, 이다연, 정은지, 일본여자골프(JLPGA)투어에서 활약 중인 초청 선수 배선우 등이 첫 다승 기록에 도전한다. 2014년 은퇴했다가 2021년 현역에 복귀한 1985년생 배경은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추천 선수로 코스를 밝힌다.

제46회 KLPGA 챔피언십(9위),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2위), 두산 매치플레이어(4위)에서 3연속 톱10에 입성한 장타자 윤이나 역시 강력한 우승 후보로 손색이 없다.

통산 상금 57억5165만 원의 프로 8년 차 박민지는 이번에 8위 이내에 들면 장하나(57억7049만 원)를 제치고 KLPGA 투어 통산 상금 1위가 된다.

박병현 기자 bhpark@skyedaily.com



방신실이 15일 강원 춘천시 라데나CC에서 열린 '2024 두산 매치플레이어' 1라운드 1번 홀에서 티샷하고 있다. 방신실은 24일부터 사흘간 경기도 여주시 페럼클럽(파72)에서 열리는 KLPGA 투어 E1 채리티오픈에 출전한다. KLPGT



39세 노장 호날두 유로 2024 누빈다

유럽 축구 사상 최초 6회 출전

1985년생의 노장임에도 여전히 세기의 축구스타로 꼽히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9·알나스르·사진)가 올해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24)에도 포르투갈 대표로 나선다.

포르투갈축구협회는 다음달 14일 독일에서 개막하는 유로 2024에 나설 26명의 국가대표 최종 명단을 2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포르투갈은 체코 조지아 튀르키예 등과 본선 리그 F조에 편성됐다.

후방 디아스, 베르나르두 실바(이상 맨체스터 시티), 브루누 페르난데스(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 전성기를 구가하는 현역 선수들이 포함된 가운데 39세의 호날두도 이름을 함께 올렸다.

이로써 호날두는 유로 2004를 시작으로 개인 통산 6번째 유로 대회에 출전한다. 6차례나 유로 본선을 밟은 선수는 호날두가 유럽 축구 사상 처음이다.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에도 벌써 5차례 출전한 호날두는 메이저 대회인 월드컵과 유로대회만 따져도 11차례나 출격한 흔치 않은 사례로 축구사에 기록

될 전망이다.

통산 206차례 A매치(국가대표팀 간 경기)에 출전, 128골을 터뜨려 출전·득점 부문에서 역대 1위를 달리는 호날두는 유로 2024를 통해 자신의 기록을 계속 새로 쓸 기회를 맞았다.

2022년 말 잉글랜드 프로축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떠나 사우디아라비아 리그 알나스르로 이적한 호날두는 올 시즌 리그 29경기에서 33골을 폭발, 득점 선두를 달리며 건재를 과시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리그 시즌 최다골 기록은 2018-19시즌 압테라지크 함달라호가 달성한 34골로 호날두의 기록과 1골 차다.

로베르토 마르티네스 포르투갈 대표팀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호날두와 관련해 "클럽팀 41경기에 출전해 42골을 넣었다. 이름값이 아닌 능력을 보고 선발했다고 밝혔다."

호날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표팀에 돌아와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박병현 기자 bhpark@skyedaily.com

NBA 보스턴 연장 접전 끝 인디애나 격파

미국프로농구(NBA) 최고 승률팀인 1번 시드 보스턴 셀틱스가 플레이오프 동부 콘퍼런스 결승전에서 힘겹게 첫 승을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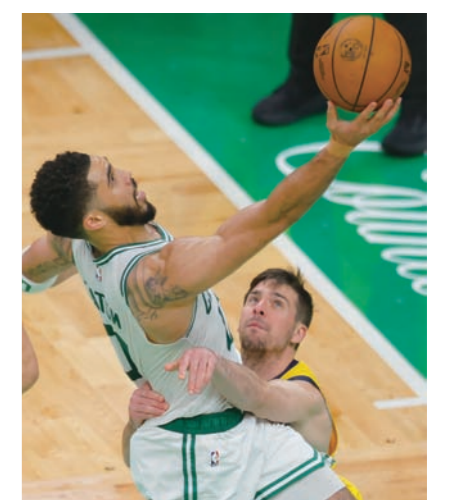
보스턴은 22일(한국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TD 가든에서 열린 2023~24 NBA 동부 콘퍼런스 결승(7전 4승제) 1차전 홈 경기에서 연장 접전 끝에 인디애나 페이스서를 133-128로 꺾었다.

제이슨 테이텀이 38득점, 즈루 홀리데이가 28득점, 제일런 브라운이 26득점을 터트리며 승리를 이끌었다.

2차전은 24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4쿼터 종료 6초 전까지 114-117로 끌려가던 보스턴은 홀리데이의 패스를 받은 브라운이 3점슛을 꽂아 승부를 연장전으로 끌고 갔다. 연장 1차전에서 인디애나의 타이리스 할리버튼에게 먼저 3점슛을 얻어맞은 보스턴은 브라운의 레이업과 테이텀의 자유투로 반격했다.

보스턴은 종료 42초 전 확실한 리드를



미국프로농구(NBA) 보스턴 셀틱스의 제이슨 테이텀(왼쪽)이 22일(한국시간) 인디애나 페이스서와의 동부 콘퍼런스 결승 1차전에서 골밑 레이업슛을 시도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잡았다. 테이텀의 스텝백 3점슛과 데릭 화이트의 레이업을 묶어 달아나기 시작했고, 종료 16.1초 전에는 홀리데이의 자유투 2개로 131-126을 만들며 승리를 굳혔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WANNA RISE?

ALCOBAÇA Stream DOUBLE WAVE



WANNA SPIN?

Ray SX-ZERO



RomaRo

(주)유니스골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189-5 인스코빌딩 문의전화 031)726-0085